누가 왜 유토피아를 꿈꾸는가?
- 『유토피아』로 본 고전적 유토피아의 초상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능성을 **기대**하고, **희망**하며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의식의 기본형태다. - E. Bloch, 『희망의 원리 』중에서

1. 『유토피아』의 바깥의 토머스 모어

1) 마키아벨리와 견주어 보기

(이해를 돕기 위해 마키아벨리와 모어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지요.) 『군주론』이 정치라는 영역에 하나의 사고방식(현실주의 권력정치)에 마키아벨리의 이름을 각인시켰다면, 토마스 모어(1478~1535)의 『유토피아』(1516)는 하나의 사고방식(유토피아주의)만이 아니라 '유토피아 문학'이라는 문학상의 한 장르 전체에도 모어의 이름을 선구자의 반열에 올려놓은 책입니다.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와 모어의 유토피아주의는 외견상 대립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실 모어의 『유토피아』는 지극히 현실적인 소설입니다. 모어는 마키아벨리와 마찬가지로, 르네상스 휴머니스트로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비참함의 원인을 '현실적으로' 분석하여 그 위에 자신의 '유토피아'를 묘사했습니다. 즉, **현실 사회의 악(惡)의 원인**을, 신(神)이나 운명의 장난이라든가 원죄(原罪)의 업보 속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운 사회구조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특히 모어는, 마키아벨리와 달리, '**일반 민중의 고통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국가는 그 구성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니다**'라는 (당시로서는 유별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모어가 살았던 시대를 잠깐 살펴보기

① **'신세계'의 '발견'** - 모어는 소위 '지리상의 발견'으로 일컬어지는 대항해시대의 절정기를 살았습니다. 1492년 콜럼부스의 대서양 횡단 항해 이래로 유럽 사람들의 세계(지구)에 대한 공간적 인식은 획기적으로 변모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아무 곳에도 없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어딘가(신세계)에 유럽과는 전혀 다른 사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의 인지)은, **기존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를 구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강하게 자극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외부'에 지금 이곳과는 다른 세계가 실재한다는 사실은, 이 세계의 바깥에 이

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럴듯한 공상'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비전(vision)'으로 보이게 만드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왕후장상(王侯將相)의 차별이 없는 사회, 기독교를 모르는 민족,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유럽인의 생활방식이 인간의 유일한 불변의 생활양식이 아니라는 사실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즉, 세계에 대한 지리적 시야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유일하다고(그래서 보편적이라고) 생각한 자신들의 풍속과 제도가, 사실은 인류의 **여러** 생활양식**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18-19세기 '서구세계의 발견'과 '지구는 둥글다'는 인식의 전파가 당대 한국 문화에 끼친 영향을 추이해 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홍대용과 최한기는, 중국이 말 그대로 中國이 아니며(천하에 중국만 있는 것은 아니며) 유교적 세계관과 질서만이 인간의 유일한 세계관과 질서는 아니다(기독교적 세계관과 서구적 사회질서라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에 도달한 대표적인 실학자들이지요.

② 종교개혁을 초래한 사회적 변동 – 잘 알려져 있듯이, 10년 이상의 나이차(差)와는 상관없이 에라스무스(1466~1536)는 모어의 '절친'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생의 지우(知友)였지요. 이들은 둘 다 사회적 관심이 강했는데, 그것은 종교개혁을 낳은 사회적 변동기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낳은 사회변동이란, 거칠게 말해서 정치적으로는 절대주의의 성립, 경제적으로는 (초기) 자본주의의 태동, 종교적으로는 교황권의 실추-교회의 대분열-원시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운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봉건 귀족층에 의한 속박과 강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왕은 대외 전쟁과 대내수탈에 열을 올리고 게다가 잉글랜드[1]의 경우에는 제1차 인클로저(enclosure)[2]로 표상되는 자본주의적 수탈까지 겹쳐지면서, 소농과 소생산자들의 삶은, "온순했던 양마저도 자신들과 자신의 토지를 먹어치우려고 몰려드는" 지경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 모어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침투할 여지가 없는 세계를 꾸며냈습니다(『유토피아』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는 실재하는 세계였지만 현실에서는 그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므로, 참으로 정확하게 그곳을 "유토피아"라고 명명(命名)했던 것이지요. 그가 생각한 유토피아의 세계를 지금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평등한 소생산자의 사회>

---

1 영국은 1707년 이전에는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와는 별개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모어가 살았던 영국을, 이 글에서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잉글랜드'로 표기합니다.

2 농촌의 모직물 공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순수한 곡물생산보다는 모직공업(毛織工業)을 위한 양모생산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경지를 목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양을 치기 위해서 울타리를 둘러야 했기 때문에 '인클로저(울타리치기)'라고 불린다. 이런 울타리치기 과정에서 농민들은 예전에는 자유로웠던 공유지(共有地) 이용권이나 (소유권은 아니어도 농민이 관습적으로 용인 받았던) 토지보유권保有權)을 상실하였고. 이로 말미암은 농민의 실업과 이농(離農) 및 빈곤층의 증대로 인해서 당시에서부터 인클로저는 큰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어는 기본적으로 '봉건 귀족이나 국왕 또는 상업자본이 농민층과 소생산자계층을 유린하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성서적 휴머니즘의 신봉자 :** 한편, 모어와 에라스무스는 신교이든 가톨릭이든 간에 **종교적 광신**에 반대하여 '(종교적) **관용'의 가치를 설파한 휴머니스트**였습니다. 물론 모어의 경우, 잉글랜드 내의 일부 '루터 추종자'에 대해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언명했다는 점에서 '언행(言行)'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루터의 교리가 '중용의 도'를 지키기에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선동적"이라는 판단의 귀결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당시 유럽 최고의 지성이자 관용의 화신처럼 숭앙되었던 에라스무스조차도 나중에는 루터에 대한 초기 선의(善意)의 해석을 거둬들이고 루터의 과격성을 비판했습니다.) ☞ 답변을 해야 할 상황을 미리 줄이고자 두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i) 종교개혁의 선구자로서 루터의 명성이 자자한 것에 비해서, 루터가 "가장 개혁적이지 않은 개혁가"라는 평가는 너무 느리게 퍼지는 편입니다. ii) 생각해 보면 자명한 것인데도 흔히 일어나는 착각 - **무엇이든지 다 용인하는 게 관용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잉글랜드 내의 일부 루터 추종자들은 이단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모어를 언행불일치의 사례로 거론하는 주장이 좀 거북스럽게 느껴집니다. 거기에는 '세밀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4) 잘 나가던 인물, 토머스 모어가 수염 잘릴 걱정을 하게 된 이유[3]

1478 : 출생 - 아버지는 비교적 성공한 축이지만 평민에 속하는 법률가
1490 : 캔터베리 대주교이자 대법관인 존 모턴(『유토피아』 1부에 언급된 그 John Morton)의 시동(侍童)
1492 : 옥스퍼드 입학 (14세)
1496 : 링컨 법학원 입학 (18세) * 카르투지오 수도원 생활
1505 : 하원의원 (27세)
1515 : 플랭드르 통상사절단 대표 (37세)
1521 : 재무차관 (42세)
1523 : 하원의장 (44세)
1529-1532 : 대법관
1535년 런던탑에서 처형 (55세)
*그는 수도원 생활 후("부정한 신부가 되느니 정직한 신랑"이 되겠다며) 결혼. 그러나 쭉 수

3 이 부분에 서술된 내용 대부분은, 박원순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한겨레신문사)의 토마스 모어 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도사 내의를 입었다 함.

① 위에 서술된 간단한 약력만으로도 여러분은 모어가 원하기만 했다면 부와 명예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거기서 내려오는 대신에 다른 세계로 오르기를 소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모어는 왜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최고위직 버리고, 아니, 현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의(사람에 따라서는, 천상의) 길을 택했을까요?

② 사건의 발단은 헨리 8세의 이혼문제였습니다(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명료한 설명은 책의 <해제>를 보시면 됩니다). 모어는 이혼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전까지 정치 문제는 물론이고 종교적 문제들(루터의 교리 - 즉, 신교에 대한 반감, 교황에 대한 충성)에서도 헨리 8세와 "환상의 복식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헨리 8세(재위 1509~1547)가 아들에 의한 왕위계승에 광적으로 집착하면서(이런 광적인 집착은 헨리 8세 입장에서 보면 왕권의 공고화라는 점에서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었지만요.) 모어와 헨리 8세의 불화는 시작되었습니다. 1533년 5월 캔터베리 대주교 회의에서의 결정(왕의 동의 없이는 회의 소집이나 주요 결정을 하지 않겠다)이 나온 다음 날, 모어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앤(전임 왕비 캐서린의 시종이었던, 영화 '천일의 앤'의 바로 그 앤)의 왕비대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534년 3월에는 <왕위계승법>(캐서린 왕비와의 결혼은 불법인 만큼 그 소생인 메리 공주는 '서출'이고, 앤 왕비와의 소생이 왕위계승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발효되어서 모든 귀족과 공직자들은 이 법령의 준수를 공개적으로 선서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반역죄로 체포될 것이라고 공고되었습니다.

모어는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모어의 침묵에는, 유럽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도덕적 무게'가 실려 있었으므로(당시 모어는 유럽에서 최상급 지식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으므로), 헨리 8세는 그의 침묵을 자신의 이혼과 결혼, 그리고 영국의 새로운 종교적 질서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놀랍지 않습니까! 말(선동)도 아니고, 행동은 더더욱 아닌, 그저 침묵이 이처럼 국왕 반대의 극점에 선 위험한 상징이 될 수 있다니!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무엇보다 무서워하는 것도 말이 없는 하늘입니다!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우리는 억울할 때 이런 말을 하지요). 이것은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을 거부하는 행위가 곧장 일제에 대한 반대 행위로 간주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나 할까요. 여하튼, 모어

는 1534년 4월 <왕위계승법>에 서명을 요구받았으나 거기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교황의 영적 지도권을 부정하는 문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반역죄로 기소를 당합니다.

③ 기소 후에 전개된 스토리, 즉 당대 잉글랜드 최고의 법률가인 모어의 침착하면서 재기발랄하고 흥미진진하면서도 논리적인 법정 진술이 궁금한 분은 박원순 서울 시장이(시장되기 훨씬 전에) 쓴 「수염은 반역죄를 저지는 적이 없다」(『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한겨레신문사, 1999)를 더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여기서는 모어가 **결국은**('처음부터'나 '기꺼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끝에 가서는'!)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권력과 부와 안락을 포기했다고 그를 칭송할 때, 그 "신념"이란 과연 무엇인지만을 살펴보고, 소설 『유토피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왕은 만인 위에 있으나 하나님과 법의 아래 있다.**"라는 말은, 모어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지론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이 구절은, 현재 하버드대학교 법대 입구에 라틴어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4]) 모어는 직접-간접적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충실하고 그 의지에 따라 행동할 뿐이 문제(왕의 결혼)에 대해서는 개입하고 싶다**"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 가능한 것이지 침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의 법이든 세상 어느 법이든 간에, 나의 침묵을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자신을 항변하였습니다. (물론, 그 항변이 도끼로 목이 잘리는 것으로 마감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요.)

☞ 이렇게 보면, 토머스 모어는 **지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실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단순하게 말하면, 그는 중세의 질서를 웅변적으로 수호해 온 로마교황청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순교**했습니다. 그의 영성(靈性: divine nature, spirituality)은 그의 인문주의보다도 강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어는 후세인들이 "북방 르네상스" 혹은 "성서적 휴머니즘"이라고 부른 근대적 기운과 인문학적 이상을 깊이 호흡했으면서도, 영성의 세계를 절대로 의식의 윗목으로 밀어 놓지 않았으니까요. ☞ 그는 젊은 날 수도원에서 4년이나 살았습니다. 젊은 날의 한 체험이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증거로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허니, 젊은 날, '눈 부릅뜨고 상대(相對)'해야지요!) 그리고 영성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끝내는 비극적 운명을 달게 받아 들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혼란의 와중에서 수동적이고 온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침묵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웅변적으로 보여주듯이 모어에게는 일반적으로 영웅적 투사나 순교자가 지닌 단호함이나 선명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침묵조차도 용인되지 않자** 그는 강인해졌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끝자락인 마지막 재판과 처형 장면에 가서는

4 Rex non debt esse sub homine sed sub deo et lege. (The King is under no man but under God and law.)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마침내** 고위관리로 출세하고 세속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현실의 세계'에서 '역사의 세계'로 존재를 옮겨놓게 되었던 것이지요. 요컨대, 시대의 배경 속에서 보자면, 모어는 가톨릭의 종교적 전통을 견지하고 영혼의 참된 신앙을 지키려다 순교한 인물입니다(실제로 순교자 모어는 로마 교황청에 의해 1935년에 성인(聖人: Saint)으로 추대되었습니다).

④ 그러나 비록 그가 중세에서 근대로의 과도기에서, 비록 중세의 질서였던 가톨릭교회를 위해 순교했으나 그 과정에서 모어는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근대의 핵심적인 이상과 가치를 드러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어에게서 그의 시대와 장소와 종교적 당파의 장막을 걷어내더라도, 그는 **국가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지킨 양심적 지성인의 표상**으로 추앙될 수 있습니다. 그가 '모어'라는 유명인이어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남이 아닌)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을 자유는 단지 '내 맘'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Right)라는 사상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이미 1,800년 전 로마의 법학자, 울피아누스(Domitius Ulpianus)는 어떤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無形의 생각일 때, 비록 다분히 빛이 바래가는 낡은 가치의 소산일지라도, 그런 생각만으로는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인간화'는 참으로 '느릿느릿'합니다.)

2. 소설 『유토피아』의 세계 속으로

1) 책의 구성과 주요 쟁점 : 이 소설은, 세 사람이 하루 동안에 나눈 대화가 1부와 2부(2부가 먼저 집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1부는 세 사람(이 중에 한 명의 이름도 모어입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혼동을 막기 위해서 소설 속의 모어를 <등장인물로서의 모어>, 소설을 쓴 현실의 모어는 <저자로서의 모어>로 구분해서 표현함)의 대화를 옮겨 적은 것으로 몇 개의 쟁점을 놓고 진행됩니다. 쟁점이 되는 주요 문제들은 <현자(지성인-철학자)의 정부(=정치)참여의 적절성> 문제를 비롯하여 <정의실현을 위한 공평하고 바람직한 방법 (절도범 증가의 원인과 대책의 문제) pp. 24~37>, <사회 내의 범죄를 증대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사유재산의 폐지-인정 문제)pp. 55~58> 등입니다.[5]

2) 유토피아 세계의 모습 : <저자로서의 모어>는 히슬로다에우스의 입을 빌려, 유토피아 섬의 특징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 정치 체제(선출직 공무원과 공화제) ; 경제 구조(국가 관리 하에 농업 중심의 체제 / 사회주의 방식의 생산과 분배 / 사유재산제도의 부재); 시민 생활(인간의 선의와 진심에 근거하는 자연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식생활, 유아, 병원 등이 공동 운영

5 이런 쟁점들은 단지 모어가 허구적으로 상정한 문제들이 아니라 실제로 르네상스 당시 유럽에서 논쟁되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 온화한 가부장제적 가정); 종교 정책(가톨릭은 아니지만 영혼불멸을 믿으며 '선행-보상, 죄-벌'의 인과응보) - 히슬로다에우스는 <저자로서의 모어>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므로, 대략 이런 정도가 모어가 『유토피아』를 통해서 그려보려 했던 소망스런 사회의 일반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가 다 모어의 의식적인(conscious) 핵심논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묘사를 한 대목들도 있으므로[6]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리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자로서의 모어>가 이 섬을 소망스러운 사회로 평가한 요체를 더 압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화용 박사의 적절히 요약을 빌려 말하자면(「토머스 모어 : 유토피아와 정치현실」 『계간 사상』(2002)), **<제도를 통한 인간욕심의 제어>**와 더불어 **<종교를 통한 도덕적 생활의 유지>**입니다.[7]

3) <저자로서의 모어>의 견해를 대변하는 등장인물은 누구? : 이 소설 읽기와 관련해서 재밌는(부디, 저만 이런 감각을 느끼는 게 아니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권에 나오는 <등장인물로서의 모어>와 히슬로다에우스의 의견 중에서 어디에 <저자로서의 모어>의 속내가 담겨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이화용 박사의 정리에 의하면, 대부분의 모어 연구자들은 히슬로다에우스가 풀어나간 유토피아 섬 이야기에 너무 주목함으로써 이 문제를 경시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소설 『유토피아』에서 <등장인물로서의 모어>는 단지 이야기를 끌어내는 주변적 인물에 불과한 것일까요? 소설 『유토피아』를 고전(古典)의 반열에 올려놓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유재산 문제를 놓고 이것을 잠깐 살펴보지요.(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이 책의 가장 유명한 대목이니 책이 있으면 꼭 표시해두시라고요!). 책 속에서 <등장인물로서의 모어>는 사유재산이 사회 범죄를 낳은 구조적 요인이라는 히슬로다에우스의 확신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히슬로다에우스는 정의가 실현되는 국가를 만들고자 할 때, 사유재산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도 재화가 인간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나 그것이 배타적 소유권이 될 때에는 더 이상 행복은 기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 <등장인물로서의 모어>는 사람은 "이익을 얻을 희망이 없으면 자극을 받지"못한다면서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제도야말로

---

6 예컨대, 유토피아 섬의 풍속을 묘사하는 부분에는, 결혼 전 나체로 서로의 신체를 보는 절차에 대한 서술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유토피아에도 병적인 외모지상주의의 "루저" 골라내기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무리한 해석이 되지요. 사실, 이런 대목도 전적으로 '뜬금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잉글랜드에 매독이라는 성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런 대목이 들어갔다는 추론도 있거든요.

7 소설 『유토피아』에서 묘사된, 이상 사회에서의 "헌정의 최고 목적", 혹은 그곳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공공의 필요만 충족되면, 모든 시민들이 가능한 한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 자유를 향유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정신적 교양을 쌓는 데 헌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경철 옮김 『유토피아』(을유문화사, 이하 『유토피아』로 약칭) p. 78. 한편, 모어는 "유토피아 사람들은 돈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탐욕까지 없앤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유토피아□ p.152). 흔히 이와 관련하여 비판이 제기됩니다만, 사회제도(사유재산제도)가 변하면 인간의 성격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탐욕의 제거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지금의 평가도 속단(速斷)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8]

저는 이 둘의 '논쟁'에서 <저자로서의 모어>의 속셈은 어느 한 쪽의 견해를 지지하기보다는 **두 가지 견해 자체를 드러내 보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로서의 모어>는 끝까지 논점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완의 결말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독자에게 열어 놓음으로써 이상 국가의 조건과 상태를 나름대로 상상할 여지를 제공하려는 게 아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초상화는 '단일한 형상'이 아니고**, 히슬로다에우스가 진술(陳述)한 사유재산의 폐지, 봉건제도의 타파, 관용된 종교의 모습과, <등장인물로서 모어>의 전언(傳言)인 사유재산의 건전한 확립, 권위의 인정 그리고 종교적(가톨릭) 도덕의 회복이라는 모습이 두루 표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로서의 모어>가 묘사한 유토피아의 의의는 "이상 국가에 이르는 구체적인 길을 명시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현실국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사회로의 진입 노력을 지속하도록 촉구하는 데 있다(이화용;289)"는 평가가 적절해 보입니다.

4) 『유토피아□에 대한 여러 해석들 : 물론, 모어의 『유토피아』를 대상으로, 크게는 모어의 정치사상을 놓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생각에 꼭 동의하거나 '동조'할 필요/이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의 문제가 무슨 결사항전(決死抗戰)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므로, 여러분 나름대로 능히 모어의 사상적 초상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책에 담긴 사상의 완결은 저자의 손이 아니라 수용자의 맘에 달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는 『유토피아』의 저술 의도에 관해 강조점을 달리하는 몇 가지 해석을 소개해 둡니다.

○ 중세 가톨릭의 이상을 회복 - 수도원 생활로 표상되는 소박한 생활과 단순한 욕망 ⇨ 이것은 사유재산제도와 어울리기 어려운 생활이다. 인문주의자로서 그는 플라톤의 '공유제'사상이나 중세 수도원의 공동생활의 경험을 분명히 그의 유토피아 구상에서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했을 것이다. 모어가 책에서 히슬로다에우스의 입을 빌려 사유재산제도의 폐해를 지적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사유재산=자본주의 제도의 근간>이라는 관념보다는 <사유재산=인간의 탐욕의 원천>이라는 생각에 우세했을 것이다.

---

8 『유토피아』 pp.55-58. **<저자로서의 모어>의 현실적 삶을 궤적을 고려할 때,** 히슬로다에우스의 전언을 당시 잉글랜드(나아가 사회 일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답안으로 <저자로서의 모어>가 간주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참여의 적합성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모어 자신이 현실에서 꾸준히 적극적인 공적(/공직)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저자로서의 모어>가, 히슬로다에우스가 주장하듯이 고독과 명상 속의 자유로운 삶이 반드시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의 생활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크리스천 휴머니즘의 부흥 : ("크리스천 휴머니즘"이란 당대 에라스무스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교의 형식이나 교회조직에 매달리지 않고 신이 준 이성을 사용하여 선(善)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주의, 주장을 말한다)

○ 봉건사회(봉건 귀족)의 모순과 불합리에 대한 인문주의자의 비판 ⇨ 중세적 계층사회에 대한 적대감과 평등주의적 의식의 발로 ⇦ 유토피아 섬에는 계급도 없고 전문화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인문주의자로서 모어는 인간의 재발견(모어는 르네상스의 대표적 인문주의자인 피코 델라 미란돌라의 전기를 쓴 바 있습니다)이든 세계의 발견이든 간에, 새로운 의식과 경험을 받아들일 충분한 용의를 갖고 있었다.

○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그것의 모순을 지적한 사회주의의 선구자 : 특히 인클로저 운동 묘사 부분을 중시하면서 사유재산의 폐지, 화폐의 폐지 그리고 계획경제의 주장을, <저자로서 모어>의 속내로 간주함(Karl Kautsky).

행여, 선택하기가 애매하다고 느끼시거나 혹은 이런 것 자체가 지나치게 '현학적'이라고 노여워하실 지도 몰라서, '정리용 종합선물세트'도 함께 끼워 넣습니다. 토머스 모어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새로운 이상>을 받아들인 르네상스 휴머니스트였으며 동시에 <신흥 중산계급 출신>의 성공한 변호사로서 자신의 <능력>으로써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그가 근대의 세례를 받았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는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와 <절대주의라는 새로운 통치형태>에 대한 <반대자>인 동시에 <그리스도교적 수도원의 이상을 고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9] 이런 측면에서 보면(사후 기술적(事後 記述的) 견지에서 볼 때), 그는 새로운 시대상황에 휩싸여 흔들리는 중세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어가 살았던 시대 자체가 전환의 시대였던 만큼이나 그의 사상과 삶도 새 것과 옛 것이 중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수하려는 가치와 신념보다 더 강하고 잔인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는 이성으로는 지상낙원을 떠올렸고, 신앙으로는 천국을 떠받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두루 감안하면, 『유토피아』는 **모어의 근대적 이성과 중세적 신앙이 길항(拮抗)하고 삼투(滲透)하면서 빚어낸 상상의 산물**인, **유토피아 이야기의 고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5) 모어가 구상한 유토피아의 비역사성의 문제 : 유토피아는, '섬'이라는 점에서 다른 현실세계와 공간적-지리적으로 절연되어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관점에 따라서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9 브르노프스키, 매즐리슈 공저, 차하순 역, 『서양의 지적 전통』 p. 94.

라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그 '이상적인' 사회 자체도 성쇠(盛衰 rising and declining)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유토피아 구상에는 그런 동태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 없습니다. 그걸 한계라고 말한다면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더욱이 <**생활수준의 획일화**(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획일화)나 **생활의 간소화**, **욕망의 단순화**, 그리고 **취향의 동질화**를 통해서 **인간의 내심을(제아무리 선(善)하게 일지라도!) 제어**하기>보다는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욕망의 다양한 분출을 인정**하며 (남에게 해가 되지 않은 한) **취향의 다채로움**을 권장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을 풍요롭게 활성**하기>의 방향으로 유토피아가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더욱,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구상의 '발단' 단계를 산 사람이지 '절정/결말'의 단계를 산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만은 부기해 두고 싶습니다. 그에게도 분명 시대 구속성은 작용합니다.[10]

3. 고전적 유토피아를 넘어서

1) 유토피아의 심리학[11]

① **누가 왜 유토피아를 꿈꾸는가?** 지금보다 더 나은 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더 나은 현실"을 추구한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낀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현실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현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는 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핏줄(혈통, 신분)이나 젠더(Gender)나 소유(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의한 불평등과 억압을 없애는 것이지요.

② **무엇이 불평등-평등의 문제를 만드는가?** 능력의 차이(육체적, 정신적, 정치적 능력에서 사람

---

10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시대구속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아닐까요? 어떤 세상사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다 아는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 아니, 있기는 있지요. 그러나 그런 '분'은 사람이되, 사람이 아닌 '존재'로 격상되므로 사람이라고 부르긴 어렵습니다. 비록 모어가 사후 400년이 지나서 '성자'의 반열에 올랐지만 그도 신은 아니지요. 어떤 책이나 글을 읽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비판이나 문제점을 찾아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속을 확 뚫어주는' 그런 비판력이 썩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나 모어의 '생각의 속살'을 제대로 보여주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앞으로 다룰 지성의 경우에도 <비판보다는 이해 우선>의 이런 경향은 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여, 그런 기대를 하신 분에게 역부족이었다는 부끄러운 고백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유토피아□에 '참고자료'로 수록되어 있는 <모어가 페터 힐레스에게 보낸 서한>(223~224쪽)은, 마치 모어가 제 마음의 일단을 설명하기 위해 써 둔 대목 같이 느껴집니다.)

11 이 절은 누다심의 『심리학블로그』(살림)의 232-259쪽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들이 모두 같은 조건에 있지는 않지요. → 능력의 결과물의 차이(건강한 사람/약한 사람이 일을 할 경우) 조건의 차이(신분, 계급의 차이)

③ **모두가 평등한 세상 만들기를 가로 막는 '심리학적 '태클'**

＊ 일의 결과가 각자 몫으로 주어지면 사회적 촉진(social facilitation)이 일어나고 함께 일하고 일의 성과가 공동의 몫으로 주어지면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는 그 평가 결과도 하나로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개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드러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지요. 거기에 사람들의 무임승차(free-riding)의 동기까지 작용하게 되면,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는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 낮아지겠죠. 이런 심리적 성향을 감안하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눈다'는 말처럼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요.

＊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는 '올바른 생각(사상)을 갖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현재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의식/각성하기만) 한다면 잘못을 고치고 개선하려고 할 것이라고 (소박하게) 전제한다는 점이지요. 선구적으로 유토피아를 꿈꾼 사람들은, 차별 없는 평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과 행위는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중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높은 이상과 투철한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저는 지금 마키아벨리처럼 당위가 아니라 존재의 세계를 놓고 말하는 중입니다.)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참된 진의를 알게 되면,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합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와 욕심을 뛰어넘고, 모두 공평하게 나누며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적인 욕심과 감정을 포기(최소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에는 유토피아의 추구를 너무 높은 이상으로 간주하고 따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모어는 이상사회 건설의 전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인간이 **선하게 되지 않는다면 세상을 선하게 만들 수는 없다.**"(53쪽, 선후관계에 주목해서 보시길)

＊ 그런데, 인간의 이성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머스 모어 이래 과학혁명, 이중혁명, 모더니즘의 시대를 거치면서 대략 400년간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성은 잘 사용하기만 하면 사회의 진보를 포함하여 무엇이든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합리성을 갈고 닦은 서양 근대의 결과는, (20세기에서 결산을 하자면) 인간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존재인지

를 증명하는 1차 세계대전, 파시즘의 도래,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게다가 프로이트는 인간은 이성과 의식보다는 감정과 무의식을 지배를 더 많이 받는 존재임을 폭로했습니다. 이성적인 존재인 척하지만 비이성적인 힘에 더 많이 좌우되는 존재인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유토피아를 과연 건설할 수 있을까요?[12]

④ **심리학적 관점에서 '유토피아'의 정리** : 심리학적 관점에서 유토피아는 우리의 마음에 존재합니다. 세상사의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어떤 곳,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고, 언제나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어느 곳, 어떤 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다(과도하게 일반화한 주장이지만 논의의 선명함을 위해 이쯤의 작위성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더 나은 세상은 외적 조건이나 환경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굳이 주관주의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런 논리는 억압자가 억압받는 자를 지배-착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논리입니다.(이런 논리를 이용해 억압받는 사람들을 계속 착취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짓이지요. 세상사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은 옳습니다. 문제는 마음을 바르게 먹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진리는 단순하다, 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진리가 단순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복잡하고 지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와 같이 마음만 거론하면서 '삽질'하는 자에게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 어조나 <친구>에서 장동건의 ("니가 가라. 하와이")투로 "니 맘이나 먼저 잘 잡수세요!"라고 '반사'해주고 싶어집니다.)

요컨대, 유토피아의 꿈과 관련해서, 심리학자의 조언을 생산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될 듯합니다. '<현실을 뒤집어엎어야 한다는 논리>와 <현실은 보기 나름이라는 논리>, 둘 중의 어느 하나만 옳은 것은 아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고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만 바꾸기도 어렵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현실이 가장 좋게 바뀌어도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바꾸면서 동시에 현실도 바꾸어야 하겠지요. 즉 <현실을 바꾸려는 실제적인 노력 **못지않게('보다도'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논리, 그리고 마음이 달라져야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을 겁니다.

2) 유토피아 의식의 가치

어떤 유토피아도 인간 모두의, 인간적 욕구 전체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

12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허버트 마르쿠제입니다. (그는 특히 『에로스와 문명』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언제고 기회가 돼서 이에 관해서도 말씀드릴 시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만, 여기서는 그의 해결책에는 <객관적 논증>과 <주관적 확신>이 겹쳐져 있다는 말씀도 적어두고 넘어갑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더욱 그럴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토피아를 상상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규범적 이념에 따라 규격화되면 상상력 자체가 빈사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꾸고 추구하려면 *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올바른 비판, *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성찰 그리고 * 발랄하고 발칙한 상상력 등이, 실천(의지)과 더불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상상력의 진원지는 현실, 정확히 말하면 불만족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만족을 때리는 뇌관이 정치적 억압,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소외와 성적 차별, 종교적 독단 등의 그 무엇이든 간에, ‘유토피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존재’와 불일치 상태에 있는 의식을(=‘현실 초월적 의식’)을 뜻합니다(손철성, 「유토피아와 유토피스틱스」). 그러나 현실 초월적이라고 해서, 경이로운 상상력을 증명하려는 “깜짝쇼”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모어(그 이후의 유토피안)의 유토피아를 향한 꿈은 한때의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 자체를 비판하고, 그런 비판을 통해서 부분적으로(사람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현실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인간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즉, 지금과 다른 세계의 실현가능성을 웅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18세기 이후 근대적 유토피아[13]는 상상을 실제로 실현하려는 계획으로 변형되었고, 기존 현실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실을 변혁시킬 수 있는 실천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나를 몽상가라고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당신도 함께 그러리라’고 상상하면서[14] 마음의 온기를 지피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모어의 시절이나 지금이나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상상력의 토양은 견디기 힘든 현실에 대한 (최소한, 은연중의) 폭로와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

13 고전적 유토피아와 근대적 유토피아의 분기점은 유토피아 사회 자체가 <완결된 형태로 제시되느냐> 아니면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겪는 것으로 제시되느냐>이다. 고전적 유토피아는 정태적(static)이고 발전이 없는 완전한 사회로 묘사되므로 기존 현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유토피아 자체가 직접적으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근대적 유토피아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사회변화를 유도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이것은 근대적 유토피아가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인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일정한 시간성과 공간성을 갖춘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본문에 적어놓은 손철성의 논문(특히, pp.175~178)을 참고.

14 존 레논의 ‘Imagine’에서. 가사 전문은 이렇죠! Imagine there's no heaven / It's easy if you try / No hell below us / Above us only sky / Imagine all the people / living for today. / Imagine there's no countries / It isnt hard to do / Nothing to kill or die for / No religion too / Imagine all the people / living life in peace / You may say I’m a dreamer / but I’m not the only one / I hope some day you'll join u, /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 Imagine no possessions / I wonder if you can / No need for greed or hunger / A brotherhood of man / imagine all the people / Sharing all the world